

## < 네 길을 주님께 맡기라 >

로마서 8:25-28 / 새찬송가 95 (통일 82)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

### 1. 사람이 불행한 근본 이유는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

근심 걱정 의 본질은 ‘복잡함’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‘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’ 고 하셨는데 이는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(마6:34). 근심 걱정으로 마음과 삶이 복잡해지면 인생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.

죄를 만드는 욕심도 그 본질은 복잡함입니다. 그래서 욕심이 생기면 마음이 복잡해 집니다. 사람을 대할 때도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복잡하게 분석할수록 사람의 죄성이 보이게 되어 결국 미워하게 됩니다.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단순하게 받아들일 때 주어지기에 ‘눈 먼 사랑’입니다.

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은 우리의 미래를 단순화시킵니다. 그래서 위대합니다. 이 꿈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(하11:1,2). 믿음은 미래를 예상하거나 복잡하게 예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

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가난하고 깨끗하다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청결하고 순수합니다.

### 2.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사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행복한 삶입니다

믿음의 기초는 하나님께 공홀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(롬9:16). 공홀히 여김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뵈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뵈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(사6:5). 그러나 하나님이 ‘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’에게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달으면 ‘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’고 간구하게 됩니다(느1:5).

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죄 사함, 용서, 의롭다하심을 얻게 되고 치료, 문제 해결, 영생복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.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이며 놀라운 것은 ‘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이끌어주신다’는 것입니다. 가장 단순하고 행복한 삶은 이런 삶입니다.

오직 하나님께 진정으로 ‘자신과 자신의 삶 전체를 불쌍히 여겨달라’고 간구하는 자는 자신의 일생과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싶어 하며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. 예수님이 이를 보여주셨습니다(눅23:46).

그러나 어려운 때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과 영혼을 주님께 맡기려 하지 않고 당장 닥친 위기만 넘기려 합니다.

### 3.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길을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행복하게 되며 우리는 세상에서도 가장 빛 된 삶을 살게 됩니다

자비와 사랑의 하나님도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기지 않는 자들의 삶을 강제로 맡아주시지는 않습니다. 우리 주님은 많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으나 그들의 삶을 다 맡아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(마14:14). 간구하는 자의 삶, 즉 여리고성에 살았던 소경된 거지 바디매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을 맡아 주셨습니다(막10:52).

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최고봉은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길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. 그때 우리는 진정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. 나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위해주시기 때문입니다. 즉 나의 진정한 소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뤄주시는 것입니다(시37:5).

오늘 본문에서 ‘네 의’와 ‘네 공의’를 그리고 ‘빛’과 ‘정오의 빛’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내 삶을 주님께 맡길 때 가장 빛나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(시 37:6). 이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나 자신의 욕심이 이 세상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세상에서 이뤄지는 것이며, 이 주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.

#### <적용&실천>

우리는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? 당장 닥친 문제와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인지, 아니면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달라는 간구인지 우리 마음을 돌아봅시다.